



▲ 김 종 춘 현장소장

사전예방활동 속에 준비하는 현장! 무재해 속으로

— 성원건설(주) 송파 가락동 주상복합현장 —

지루한 장마는 남쪽으로 내려가 올라올 기운을 차리지 못한채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언제 장마가 왔었냐는 듯 연일 폭염이 한창이다.

30도를 육박하는 태양의 열기는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그 위의 타이어까지 녹일 듯한 기세로 달려들어 이마에는 연신 땀방울이 솟는다.

건설현장에서의 어려움이란 어느 계절에나 없겠느냐만 아마도 용광로 같은 열기를 내뿜는 여름이야말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안전의 끈을 놓지 않는 곳! 성원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송파 가락동 주상복합현장(김종춘 현장소장)을 찾았다.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의 2개동의 Main Tower로 구성된 송파 가락동 주상복합 현장은 층 단차 설계 특성과 저층부 상가, 지상층 APT 개별 공사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평면상 Core의 구분으로 세대별, 평형별(17개 평형)로 설계되어 있어, 공정상의 어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다.

예방안전을 위한 사전 안전활동

사고는 사전에 예지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김종춘 소장은 현장에서 예지를 위한 사전 안전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공정인 철근콘크리트의 지상 저층부 2층(APT 기초) 공사에서도 철저한 사전 안전활동으로 안전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교량공사 현장에서 볼 듯한 구조물인 2~3m의 대형 구조물을 건축물 중간층에 설계·시공하는 일은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며, 그 사례 또한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 곳 현장에서는 시공 3개월전부터 시공협의 때에 안전시스템 서포트, 안전발판 등 안전가시설 설치 계획과 시공안전구조 검토 등 철저한 안전시공 계획을 바탕에 두고, 시공전 1~5회에 걸친 철저한 훈련과 교육으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2개월에 걸쳐 안전하게 공정을 마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김종춘 소장이 말한 예지를 위한 사전 안전활동이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해당 공정의 안전시공법은 책으로 묶어 건설 후배들에게 물려준다.

정적인 안전에서 동적인 안전으로

안전활동에는 안전교육과 같은 정적인 안전이 있는가 하면, 구조적인 체제, 감시 장비 등과 같은 동적인 안전이 있다. 최근 이 현장에서는 동적인 안전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환기장치, 안전감시단, 안전순찰대 운영, CCTV 등이다.

지하 4층의 지하 현장 근로자가 분진, 먼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장해를 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하의 나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가설환기 환을 설치하였고, 최고층 빌딩의 특성상 현장을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T/C 및 정문에 CCTV를 설치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에 따라 안전사각지대가 없는 현장으로 거듭났다.

또한, 안전난간대의 차별성이다. 철근콘크리트의 초고층 구조물로 기존 아파트 골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방식대로의 비계난간대에서 탈피한 와이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등 작업 공중 변화에 맞게 움직이는 안전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안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시공사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가야하지만, 안전 행동에 있어 주축은 모든 시공을 이끌어가는 협력업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곳 현장에도 25개의 적지 않은 협력업체가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소속이지만 가락동 주상복합현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재해 준공을 향해 하나가 된다.


매월 금요일이면 협력업체 소장이 주축이 된 자율안전점검 순찰대를 조직하여 현장 곳곳을 누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불안전요소는 안전관리팀에 보고되어 즉시 시정토록 하는 사후 관리 속도 또한 신속하다.

이들 자율안전점검 순찰대는 협력업체가 주축이 되어 현장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5개 각기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공종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현장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의 전문 공종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내실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당근과 채찍, 그리고 무재해

자율적인 사전 안전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포상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무기력해지기 쉬운 무더운 요즘, 특히 하루 출력인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기에 지금까지의 시정 조치에 대한 지도, 계도 차원이 아니라, 자칫 작은 실수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 퇴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차갑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이곳 현장의 방향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고품질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근로자의 안전으로부터 고품질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김종춘 소장도 이러한 점을 알기에, 단 한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재해 준공을 통한 고품질 송파 가락동 주상복합 성원상떼빌이 탄생되길 바라고 있다. 

〈최종덕 기자〉

